

# 최근의 전자산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본회

## 1. 우리나라 전자산업 상반기 동향

### 1) 수요 및 공급

우리나라 전자산업 수출은 금년 상반기까지 약 217억불로 작년보다 14.5%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 증가율 3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주요 인은 주종품(전자전체의 약 50

%)인 반도체의 국제 가격급락과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평가절하폭(지난 1년간 약 31.5%)이 원화(약 6.5% 잘하)보다 훨씬 컸음에 비해 그만큼 우리는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판(생산중 국내 판매분)은 금년 상반기까지 5조 6,660억원으로 작년보다 14.0% 증가했으며 작년 상반기 증가율 12.7%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주요인은 가전제품의 보급포화, 셋트제품 수출지조로 인한 전자부품 판매부진에도 불구하고 신규통신서비스 등으로 정보통신 부문의 수요가 크게 증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산은 금년 상반기에 약 26조 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8.3% 성장했고 작년 상반기 성장을 29.6%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인은 수요측면에서 시판이 다소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의 수요구조가 수출중심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생산 대 수출비율 약 70%) 수출증가율이 작년수준보다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금년 상반기에 약 134억불로 작년보다 12.1%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43.3%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다.

### 전자산업 상반기 동향

(편집자주) 본고는 최근 수출저조 등 우리경제 전반의 침체와 관련, 성장주도 산업인 전자산업의 하반기 전망을 미리 조사, 제시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으로 하여금 사전에 그 대응책을 강구도록 하기 위해 본회가 매월 실시하는 전자·전기제조업 실태조사와 관세청의 전자제품 수출입통계를 토대로 한 동향 분석결과와 주요전자제조업체 120개사(전체 생산액의 81.5%비중) 대상 설문조사('96. 5. 25~6.25(31일간)에 의한 하반기전망을 요약한 것임'

구 분	'95상반기(실적)		'96 하반기(추정)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수 요	수 출(백 만불)	18,946	37.5	21,698	14.5
	시 판(10 억 불)	4,970	12.7	5,666	14.0
공 급	생 산(10 억 원)	22,069	29.6	26,109	18.3
	수 입(백 만불)	11,971	43.3	13,416	12.1

주요인은 수입 주종품이 생산재인 전자부품 및 재료(전체수입의 54%)와 계측기 등의 산업용기기인데 비추어 수요측면에서 수출증가율이 낮아졌고 제조업 전반의 시설투자가 위축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2) 월별 수출동향

### ○ 3월까지(1/4분기)

- 20% 이상의 높은 증가세 시현

- 그 요인은 반도체가 주도
- 일반 전자제품은 10% 전후의 비교적 낮은 증가세

### ○ 5월까지(2/4분기)

- 4월에 7.1% 증가세에서 5월에는 4.2% 감소세로 반전
- 그 요인은 역시 반도체가 가격하락 등으로 주도
- 일반 전자제품은 10% 내외의 낮은 증가세가 지속

## 전자산업 월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 자	3,904 (52.1)	3,608 (29.3)	3,938 (22.0)	3,451 (7.1)	3,314 (-4.2)
반 도 체	2,187 (82.3)	1,924 (49.6)	2,031 (42.6)	1,525 (-1.3)	1,373 (-18.0)
기 타	1,717 (25.7)	1,684 (12.0)	1,907 (5.7)	1,926 (14.8)	1,941 (8.9)

## 3) 분야별 동향

### ① 가정용기기

수출은 금년 상반기까지 약 40억불로 작년보다 7.3%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9.0%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 요인은 기본적으로 선진국(미, 유럽 등)의 수입규제 심화 등으로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경쟁력 약화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C-TV, 냉장고 등이 신시장개척(러시아 등) 노력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오디오, 전자렌지 등이 감소세에 있고 작년에 호조를 보인 대일 수출이 일본의 엔저로 인해 감소세로 반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판은 금년 상반기까지 약 2조 1,600억원으로 작년보다 1.3% 증가,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2.8%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 요인은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한계 보급에 이른데다 내수경기조차 침체현상으로 룸에어콘 이외에 대부분이 작년보다 감소세로 나타났다.

생산은 금년 상반기까지 약 5조 7,000억원으로 7.1% 증가하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8.0%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요인은 수요측면에서 수출과 내수가 다같이 저조한 것에 기인한다.

수입은 금년 상반기까지 약 8억불로 작년보다 1.8% 감소했으며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44.7% 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요인은 역시 수요측면에서 내수가 저조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② 산업용기기

수출은 금년 상반기까지 약 39억불로 작년보다 13.6%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30.

## 가정용 기기

(단위 : 백만불)

구 分	'95상반기(실적)		'96상반기(추정)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수 출 (백 만 불)	3,750	9.0	4,023	7.3
시 판 (10 억 원)	2,135	2.8	2,163	1.3
생 산 (10 억 원)	5,355	8.0	5,735	7.1
수 입 (백 만 불)	816	44.7	801	-1.8

## 반도체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分	'95상반기(실적)		'96상반기(추정)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수 출 (백 만 불)	8,959	64.1	10,449	16.6
시 판 (10 억 원)	456	78.1	471	3.2
생 산 (10 억 원)	7,698	55.2	9,182	19.3
수 입 (백 만 불)	4,290	47.0	5,001	16.6

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주요인은 프린터, CD-ROM 드라이브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 했으나 이는 금액상으로 비중이 낮으며, 주종품인 PC, 전화기, 위성방송 수신기 등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휴대폰은 수출주력기업(전체의 95%)이 외국인 기업으로서 자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수출지역을 아시아 지역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판은 금년 상반기까지 약 2조 1,600억원으로 작년보다 37.9%가 증가,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10.9% 보다 크게 호조인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인은 이동무선 전화가입비 경감, 새로운 CDMA 이동무선전화서비스 도입에다 정보화사회 확산으로 PC 등의 정보기기 수요가 증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은 금년 상반기까지 5조 5,600억원으로 작년 보다 26.3% 증가,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19.6% 보다 다소 높아진 수준이며 주요인은 생산대 수출비율이 낮은 상태(생산대 수출비율 약 555)에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국내 생산판매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입은 금년 상반기까지 약 54

#### 전자부품 동향

#### 산업용기기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95상반기(실적)		'96상반기(추정)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수 출 (백 만 불)	3,422	30.4	3,886	13.6
시 판 (10 억 원)	1,568	10.9	2,162	37.9
생 산 (10 억 원)	4,402	19.6	5,560	26.3
수 입 (백 만 불)	4,879	43.9	5,428	11.3

역불로 작년보다 11.3% 증가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43.9% 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주요인은 작년의 경우 민간 지역방송 등으로 인한 방송장비와 제조업체의 생산시설 투자가 확대되어 계측기 등의 수입이 많았던데 비추어 금년에는 그러한 수요가 크게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③ 전자부품

수출은 금년 상반기까지 33억 4,000만불로 작년보다 18.7% 증가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25.0%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주요인은 기본적으로 저항기, 스피커, 등 중소기업형 전자부품의 가격경쟁력이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 밀리고 있는 데다 자기헤드 등 일부 부품은 해외생산으로 CPT 등은 우회수출 규제의 영향때문으로 분석됐다.

시판(로칼판매 제외)은 금년 상반기까지 8,700억원으로 작년

보다 7.3% 증가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21.9%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주요인은 수요자인 셋트업체가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저조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은 금년 상반기까지 약 5조 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2.1% 증가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34.5%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주요인은 수요측면에서 수출과 시판의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헤드, 튜너 등의 해외생산화 등으로 분석됐다.

수입은 금년 상반기까지 약 21억 8,600만불로 작년보다 10.0% 증가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33.9% 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며 주요인은 수요측면에서 수출과 시판 증가율이 둔화된데다 TFT 방식의 LCD 등 주요부품의 국산화로 수입대체가 주요인 것으로 분석됐다.

#### ④ 반도체

수출은 금년 상반기까지 약 104억불로 작년보다 16.6% 증가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64.1% 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주요인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제 가격급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 ('95.12월대비 '96.5월 둘째주  
현물시장 가격)

4M : \$ 11.5 → \$ 4 ~ \$ 5(인하 율 : 57% ~ 66%)
16M : \$ 46 ~ \$ 52 → \$ 16 ~ \$ 18(인하율 : 60.9% ~ 69.2 )

시판은 금년 상반기까지 약 4,700억원으로 작년보다 3.2% 증가 이는 작년도 상반기 증가율 78.1% 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며 주요인은 역시 국제가격 하락에다 국내 수요까지 감축한 것에 기인한다.

생산은 금년 상반기까지 약 9조 1,800억원으로 작년보다 19.3% 증가 이는 작년도 상반기 증가율 55.2% 보다 역시 크게 낮아진 수준이며 주요인은 수요 감축에 단가 하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은 그면 상반기까지 약 50억불로 작년보다 16.6%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47% 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주요인은 전자산업 전체수요의 감축에다 DRAM생산축소로 그 원자재 수입증가율도 둔화된 것에 기인한다.

#### 수출 응답표

구 분	악 화		대등수준지속		호 조		합 계	
	응답수	구성비	응답수	구성비	응답수	구성비	응답수	구성비
전자산업	31	25.8	45	37.5	44	36.7	120	100
가정용기기	7	26.9	7	26.9	12	46.2	26	100
산업용기기	6	20.7	12	41.4	11	37.9	29	100
전자부품	15	24.6	26	42.6	20	32.8	61	100
반도체	3	75.0	—	—	1	25.0	4	100

설문조사 개황표

구 分	악 화		대등수준지속		호 조		합 계	
	응답수	구성비	응답수	구성비	응답수	구성비	응답수	구성비
경기전망	48	20.0	100	41.7	92	49.4	240	100
수출전망	31	25.8	45	37.5	44	36.7	120	100
내수전망	17	14.2	55	45.8	48	40.0	120	100

## 2. 국내 전자산업 하반기 전망

### 1) 설문조사 결과

#### ① 개황

전자업계는 대부분(전체의 41.7%) 작년에 비해 둔화되고 있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으로 보는 업체가(38.3%)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둔화세가 심각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자업계는 최근의 반도체 문제가 단기적인 것이며 전자업계 전체의 개발 및 시설투자도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핵심부품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 내수 응답표

구 分	악 화		대등수준지속		호 조		합 계	
	응답수	구성비	응답수	구성비	응답수	구성비	응답수	구성비
전자산업	17	14.2	55	45.9	48	40.0	120	100
가정용기기	4	17.4	9	39.1	10	43.5	23	100
산업용기기	4	11.8	13	38.2	17	50.0	34	100
전자부품	8	13.6	30	50.8	21	35.6	59	100
반도체	1	75.0	3	75.0	—	—	4	100

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보다 정보통신 등의 내수증대에 기대를 걸어 상반기 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업체(20.0%) 보다는 다소 호전될 것

어느 분야보다 유망한 분야인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수 출

전체적으로는 조사업체의 36.7%가 하반기에 호조를 내다보았으나 전자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계는 악화될 것으로 나타나 전체로는 그 전망이 결코 낙관하기 곤란하다.

다만 가전업계의 신시장개척과 정보통신 업계의 CD-ROM 드라이브, 프린터 등 신상품 수출증대 등으로 반도체 이외의 전자제

품 수출은 어느 정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③ 내 수

조사업체의 40.0%의 업체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악화되 것으로 보는 업체는 전체의 1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하반기에 큰 기대를 거는 업체들은 정보통신 등 대부분 산업용기기 업체들인데 반해 반도체는 단가하락, 전자부품은 셋트 수출 수요감퇴, 가전업체는 보급 포화 등으로 큰 기대를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 ④ 투 자

조사업체의 대부분인 62.5%의 업체가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투자를 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전자산업의 향후 수출전망은 어느 정도의 기대도 가능하다.

투자확대분야는 반도체의 비메모리, 산업용기기의 이동통신기기, 전자부품의 LCD, 가정용기기의 디지털 가전제품 등의 개발 및 시설투자가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

## 2) 전자산업 수급전망

### ① 개 환

### 하반기 전자산업 전망

구 분	'96상반기		'96하반기		'96년간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수출(백만불)	21,698	14.5	27,159	10.2	48,857	12.1
시판(10억원)	5,666	14.0	6,345	19.7	12,011	17.0
생산(10억원)	26,109	18.3	30,780	13.8	56,889	15.8

### 산업용기기 전망

구 分	'96상반기		'96하반기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수출(백만불)	3,886	13.6	5,072	19.5
시판(10억원)	2,162	37.9	2,861	41.3
생산(10억원)	5,560	26.3	7,307	29.7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 증가율 14.5% 보다 다소 낮은 10.2% 증가에 그쳐 올해 수출액은 작년 보다 12.1% 증가된 약 488억불로 전망되며 하반기 수출증가율이 상반기 보다 다소 둔화될 요인은 주종품인 반도체가 4월 이후 크게 저조했기 때문이며 반도체 이외의 전자제품은 상반기 수준과 비슷한 14.0%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시판은 상반기 증가율 14.0% 보다 낮은 19.7%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오해 시판 증가율은 17.0%로 작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호조를 보일 요인은 정보화 사회 확산으로 정보통신기기의 수요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위성방송 시행 등 새로운 매체의 도입, 수입제품의 국산개발 및 국산전자기기 구입 지원제도 활용 등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 ② 분야별 전망

#### 가. 가정용기기

수출은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해외생산확대, 경쟁력약화 등으로 하반기에도 크게 호전될 요인이 없어 상반기와 같이 C-TV, 냉장고 등이 주도해 7.2%의 낮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시판은 보급률 포화 등으로 특소세 폐지 등 정책적인 요인이 없다면 상반기의 저조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되어 3.2% 낮은 증가 전망, 디지털위성방송실시, 와이드 TV출시 등에 기대를 걸지만 안테나 등 관련 장비소요 등으로 단기 기대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은 수요측면에서 그 증가세가 저조하고 해외생산 확대도 상반기 증가율 보다 다소 낮은 4.5% 정도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가정용기기 전망

구 分	'96상반기		'96하반기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수출(백만불)	4,023	7.3	4,407	7.2
시판(10억원)	2,163	1.3	2,124	3.2
생산(10억원)	5,735	7.1	5,582	4.5

## 나. 산업용기기

수출은 하반기에도 전화기, PC 등이 경쟁력 약화로 저조할 것으로 보이나 모니터, 프린터 등과 CD-ROM 드라이브 등의 호조세가 지속되어 19.5% 정도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판은 신규 통신서비스 실시, CDMA 방식 이동통신 서비스 등으로 인한 통신기기와 정보기기 분야에서도 인터넷 이용 확산, 멀티 및 노트 PC보급 등으로 수요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도 수출과 시판의 호조로 상반기 보다 높은 29.7%의 성장이 예상된다.

## 다. 전자부품

수출은 하반기에 상반기 증가율 18.7% 보다 다소 낮은 15.4% 증가에 그칠 전망, 그 요인은 LCD와 같은 부품은 수요확대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나 튜너 등은 해외생산체제로 저항기, 스피커 등 대부분의 범용 부품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판은 상반기 증가율 7.3% 보다 높은 11.2% 증가가 가능할 것

## 전자부품 전망

구 분	'95상반기		'96상반기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수 출 (백 만 볼)	3,340	18.7	3,617	15.4
시 판 (10 억 원)	870	7.3	1,027	11.2
생 산 (10 억 원)	5,632	22.1	5,284	13.7

## 반도체 전망

구 분	'95상반기		'96상반기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수 출 (백 만 볼)	10,449	16.6	14,063	6.9
시 판 (10 억 원)	471	3.2	333	13.6
생 산 (10 억 원)	9,182	19.3	12,607	10.4

으로 예측, 그 요인은 셋트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툰, 헤드, PCB 등이 저조세에 있으나 CDT 등의 수입부품이 국산화 촉진으로 어느 정도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은 수출의 낮은 13.7%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저항기 등 범용부품은 수요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약해 중국 등 후발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 라. 반도체

수출은 하반기에 그동안 업계의

감산 등으로 가격하락이 둔화되거나 다소 반등의 여지도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16DRAM의 가격이 연말에 \$17~18% 정도로 일단 가정하면 6.9% 정도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판은 하반기에 셋트의 내수확대, 수출부진으로 인한 내수시장 적극 공략, 비메모리 부문의 국산개발 등으로 상반기 보다 높은 13.6%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생산은 가격하락으로 상반기보다 크게 낮은 10.4%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